

독립경제 · 사람중심 경제 실현

전주시, 지역상권 초토화 대형쇼핑몰 입점 대신 전통시장 ·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전주시가 지역 상권 보호를 강화하고 나서며 독립경제와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시가 지역거여 권고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준대규모 점포(SSM)까지 확대하고, 지역거여 실적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공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공동체 회복을 전제로 먹거리와 경제, 문화,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립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전주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월 2차례(물체·넷째주 일요일)의 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동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나들가게 육성, 동네서점·동네방집 살리기 등 수익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골목상권을 되살리는데 집중했다.

특히 각종 공사 발주 시 공정과 품질 상 문제가 없는 한 분리 발주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 구매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읍내 시립도서관과 공·사람작은도서관에 비치

할 8억원 가량의 도서를 연간 20회 이상 분할 발주해 인증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향토기업이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립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기업이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228개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 300여 가지를 해결한 데 이어 2017년 현재까지 120여차례에 걸쳐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기업성장의 걸림돌도 제거해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주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보다 10배 늘어난 수출지원

산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전주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농촌 경제 기반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전주푸드플랜은 10년 내 지역산 비중을 20%로 올림으로서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촌에는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독립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역시장, 지역상권, 향토기업, 지역먹거리를 지킴으로 일하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전주형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이러한 정책들은 도시경제지침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채규남기자

전북은행, 부행장보 · 본부장 임원 3명 선임



김종원



전병찬



이달호

전북은행 본부장 및 부행장을 역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행장보로 재선임됐다.

전 부행장보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공고와 전북대 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0년

임행한 뒤 ICT지원부장을 거쳐 이번에 부행장보로 선임됐다.

이 본부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호서고와 원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김제 출신인 김 부행장보는 금산상고와 전북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민근기자

JB금융그룹 계열 전북은행은 1월 1일자로 임원급으로 김종원 부행장보, 전병찬 부행장보, 이달호 본부장 등 임원 3명을 선임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김제 출신인 김 부행장보는 금산상고와 전북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가맹사업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가 변경된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열흘 내에 협의에 임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증가에 따라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당국은 사후로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돼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뉴시스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분담하도록 한 셈이다.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돼 있는 의식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불공정 가맹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본부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가맹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뉴시스

중소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1조 917억원 R&D 자금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위한 통합공고문 발표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 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위한 통합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기업청 출혈을 계기로 타 부

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원이며, 2017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

2018년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돈든 한 동반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특히,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 지역 혁신클러스

터화를 촉진하며, 민간 주도,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금년도 R&D 지원사업 종합 안내를 위해 2018년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기술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금융당국, 금융업 인 · 허가 쉽게 바꾼다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금융업 인·허가에 있어 심사 필수 요건에 임원 결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해 금융회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한다.

대주주 결격요건 등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 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는 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재는 e-금융인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적인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앞으로는 인가 신청 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적조사,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해 제공하고 중요일정은 자동 통보할 예정이다.

당국은 2018년 1분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캠코, 37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 · 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37억원 규모, 총 19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개매각의 경우 신규 물건 58건 및 최초 매각·대부에정가보

다 저렴한 물건 118건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뉴시스

신입사원 최대 11일 연차휴가

신입사원도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도합 2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었다.

최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신입사원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해 육아휴직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앞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1월부턴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게 된다. /뉴시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